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청신호

순천시, 국·도비 168억 확보 기반시설·야간경관 등 조성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 10개 사업 관련 국비와 전남도비 16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박람회 기반시설(국도비 59억5000만원) ▲국가정원 야간경관(도비 24억원) ▲국가정원 식물원(도비 24억7000만원) ▲AIPH미래정원(도비 20억원) ▲한반도 분화구정원(국비 12억원) ▲생활밀착형 숲(국비 15억원) ▲해룡천변 생활환경 숲(도비 5억원) ▲육외광고사업 수익금(국비 6억원) 등이다.

이는 교량교 재가설과 생태정원거리 조성(국비 56억원), 죽도봉 일일 관광명소화(국·도비 20억원) 등 순천시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3대 길러 콘텐츠로 내세우는 한반도 분화구정원, AIPH미래정원, 국가정원 식물원 등 3개 사업 모두 별도의 국·도비 지원을 받게됐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국도비 확보 사업 설명회,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제공

이런 성과 뒤에는 순천시와 전남도, 소방청·서동울 국회의원 등 3각 공조가 있었다는 평가다.

양선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은 "168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게 돼 박람회 성공 개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직위원회는 내년 초 시설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박람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사업비 467억원을 투입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22일~10월22일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시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칼바위 마애불상 산림청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고시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보성군 특량면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과 칼바위 마애불상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에 지정·고시됐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오봉산 구들장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40여년간 우리나라 구들장 공급량의 70%를 공급했다.

오봉산의 구들장은 무계에 비해 강도가 좋으며, 공극이 많아 열 전달과 지속성이 높아 온돌 재료로써의 가치가 우수하다. 1980년대 이후 보일러 등의 난방기술 향상으로 구들장 수요가 급감했다.

이러한 구들장을 실어 나른 우마차길은 오봉산 급경사 지역에서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바위의 요철에 따라 자연스럽게 석축을 쌓아 만들었는데 위에서

바라보면 '갈지(之)' 자와 미로처럼 보인다.

이와 함께 보성 오봉산 칼바위 마애불상은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약 30m 높이 부근의 칼바위 절벽에 새겨져 있으며, 통일신라 때 원효 대사가 이곳에 올라 불도를 닦는 모습 또는 부처님의 형상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국가산림문화자산 현장 조사에 참여한 산림청 심사위원(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은 "석축을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마차길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며, 칼바위에 새겨진 차일을 쓰고 있는 형태의 마애불상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2014년부터 숲과 숲에 있는 나무 및 자연물 산림문화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



'갈지(之)'자 모양의 보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

국가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보성 오봉산 구들장 우마차길과 칼바위 마애불상을 잘 보존해 지역 산림관광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성군과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오감만족 광양 김 여행' 생생문화재 우수사업 선정

'오감만족 광양 김 여행'이 2021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중 생생문화재 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받았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중 하나인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해 누구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이다.

생생문화재 분야 우수사업에 선정된 '오감만족 광양 김 여행'은 광양시 향토청년회가 2020년부터 전남도 기념물 제113호 '광양 김 시식지'를 활용해 진행한 사업이다. 세계 최초 김 양식을 기념하는 광양 김 시식지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교육, 공연, 체험, 관광 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표 프로그램이자 지역 친화형 프로그램인 '원조 광양 김 양식&용지 큰줄다리기 체험', '김 요리를 부탁해', '원조 광양 김 해운(海運)음악회' 등 3개의 프로그램이 김 양식·김 요리 체험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광양 김 시식지 방문객에게 광양 김의 우수성과 풍요로운 맛의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했으며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사전·사후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참여와 사회적 약자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을 얻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시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100원'

나머지 요금 1100원 시에서 보조...내년 예산 38억 확보

여수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가계 부담과 학생 교통비 절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100원 시내버스' 제도를 시행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교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교통카드 사용시 100원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지난 2018년 초등학교생 100원 버스를 시행한 뒤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이어 중고생까지 확대하자는 요청이 잇따르자 시민 167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와 추가 재정 소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청소년 100원 버스 시행을 결정했다.

중·고교생을 포함한 만18세 이하 청소년이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면 1200원 중 100원만 차감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버스업체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2022년 본예산에 청소년 100원 버스 지원예산 38억 원을 확보했다.

여수시 중·고등학생 수는 총 1만 4570명이며, 2020년 기준 연간 이용건수는 약 220만 건으로 전체 1630만 건 중 약 14%를 차지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버스비 지원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학생들의 이용 증가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구례군, 도시민 체류형센터 정착교육 39명 수료

구례군이 도시민의 안정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10개월간 운영한 체류형센터의 정착교육 5기 수료식이 최근 열렸다.(사진)

구례군은 지난 3월부터 작물 재배, 농기계 사용법 등 이론과 실습, 선도능가 방문, 귀농 귀촌인 협회와의 간담회 등 34회 136시간의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35세대 교육생을 모집해 32세대 39명이 수료했다. 이번 교육생은 각자의 재능을 활용해 타구, 요가 등 동아리활동과 '구례살이' 소식지 3호를 발간하는 등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 코로나19로 불편한 점이 많았음에도 입교생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무사히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체류형센터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류형센터는 2022년 1월 말까지 35세대(원룸형 30세대, 단독주택형 5세대)를 대상으로 6기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입교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도시재생인정사업' 선정...국비 31억 확보

곡성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1억원을 확보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19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기초 생활시설이 낙후된 지역에 생활SOC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점 단위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선정으로 곡성군은 총 81억원을 투입해

오곡면사무소 부지에 지상 3층(연면적 2370㎡)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커뮤니티센터 내에는 면 사무소를 비롯해 청년 활동 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이 들어선다.

곡성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곡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